

우리도 선진국 한번 할 수 있을까

글 | 김갑수 _ 문화평론가 dylan@unitel.co.kr

‘빵’을 달라고 시위하는 굶주린 군중에게 그림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는 마리 앙투와네트의 전설이 먼 나라 일이 아니었다. 무슨 일인가로 옥신각신 하다가 ‘엄마, 넌 밥을 굶어본 적이냐’는 아버지의 타박에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 녀석은 그렇다고 당당하게 답했었다. 뭐 소리냐고 물으니, 어느 날 학교 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밥이 하나도 없어서 못 먹었다. 그 다음 말이 걸작이다. “할 수 없이 피자 시켜먹었던 말야!”

녀석은 농담을 한 게 아니었다.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아이에게는 이해 불가능의 범주에 있었다. 그런데 그제 어디 내 아들 녀석만의 사정이겠는가. 진짜로 요즘 청소년들은 5.18 광주 의 일을 임진왜란 시대쯤으로 알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은 어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듯하다. 지난 해 여름 동유럽 여행을 처음 했는데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에서 일행들은 말했다. “못 사는 나라가 궁핍은 참 좋네.” 쥐구멍 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었다.

지난 100년간 변동 없는 상위권 10여개국

사람의 기억주기는 정말 짧은 듯하다. 원래 그렇게 빈약한 능력을 타고 나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 생애 중에 워낙 상상 못할 변화를 다양하게 겪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거나 북녘의 명산을 관광차 다녀온다는 것은 반공방첩의 구호를 외치며 성장한 사람에게는 초현실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초현실에도 금방 적응하여 기정사실처럼 여기게 된다. 지난 일은 강그리 잊히는 것이다.

짧고 빈약한 기억력이 안겨주는 환각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것을 들라면 역시 두 세대 전의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1950년대 끝머리에 태어난 나는 국민학교 때 내 뒷자리에 앉은 친구의 아버지가 ‘똥퍼장수’ 였던 것을 기억한다. 엄마 몰래 꿀꿀이죽을 사먹어 봤다가 혼났던 기억도 난다. 그런 내가 지금은 가족을 이끌고 폴란드 같은 데를 놀러 다니고 있으며, 그런 내가 상류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니 초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초현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바꿔 보자. 요즘 국가비전으로 가장 크게 운위되는 말인 선진화는 정말 가능할 것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몇 십년의 노력 끝에 선진 10여 개 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를 되물어 본다. ‘하면 된다’가 또박또박 들어맞은 몇 십년 체험을 했으니 관성의 법칙으로라도 가능할 것만 같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먼저 선진국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되어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건너뛰자. 국민소득 한 4만 달러 내외의 잘 사는 나라라고 조야하게 규정해도 된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상위권 10여 개 나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10개 국 내부 순위에만 변화가 있었을 뿐 탈락한 나라도 없고 새로 진입한 나라도 전혀 없다. 아르헨티나의 예가 자주 거론된다. 국가 경제규모가 세계 6위로 새로운 선진국이 되는 듯 했지만 오래 못 가 결국은 추락해 버렸다. 체코의 황금기도 오래가지 못했고 필리핀, 멕시코의 번영도 한 때의 영화에 불과한 일이었다.

우리나라만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싶다. 우리는 다르다고, 흔히 말하듯이 한국인은 남다르게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혹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말에 의지해서라도 믿고만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 외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 공허한 마음은 왜일까. 우리만은 기왕에 추락했던 나라와는 다르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별로 떠오르지 않는 탓이다.

선진국 진입의 희망적인 요소들

그럼 애써 희망적인 요소와 그렇지 않은 측면을 찾아보도록 하자. 우선, 상승했다가 추락했던 나라들에는 모두 공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배 상층부가 특권적 질서를 완결하는 순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정확하게는, 특권층의 이익을 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빈곤층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자빠진 게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대부분의 경우다.

그 점이라면 우리 형편은 꽤 희망적이다. 기왕의 선진국들이 혁명이든 개혁이든 저항이든 체제 내부개혁의 에너지에 기대어 유지되어 왔듯이 우리에게도 자체 갱신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앞으로 그 가능성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력이 말하는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박정희 이래의 산업세력이 계속 집권해 왔다고 가정해 보자. 국가 활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세력은 모두 압전히 체제 내에 동화되어 산업역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지배질서의 지속적인 개편은 곧 사회 에너지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한다.

희망적인 요소는 더 있다. 가령 양극화, 부의 편재와 대물림 등을 우리는 우려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 우려의 단계라는 점이다. 만일 빈익빈 부익부의 정도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아직 상당히 양호한 상태, 즉 계층 유동성이 그나마 탄력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진단이다. 브라질 상 파울루 대학에 오래 유학했던 지인이 큰소리로 웃으며 말하던 게 떠오른다. “우리나라, 너무나무 평등해서 미치겠어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에는 사실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평균적인 국민은 아직 이견희 회장 가문의 부를 질시하고 비난할 정도의 성취동기가 살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이 곧 선진국 진입의 전제는 아닐 것이다. 대체 무엇을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말하는

성장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빈곤국 시절에야 덜 먹고 덜 자고 희생을 감내하면 살림살이는 부쩍부쩍 좋아졌다. 그러나 첨단산업이 덜 먹고 덜 잔다고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암만해도 아닌 듯하다. 혹시 IT분야의 하드웨어 강국이라고 말하면 모를까 정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생산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생산품을 본 일이 없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각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들춰보면 판단이 빠를 것 같다. 가령 나는 출판 쪽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출판물의 양으로 보자면 세계 일곱 번째니 뭐니 하는데 그 내용물의 태반은 지적 생산물과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다. 우리 출판물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번역 출간되는 일이란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출판 제작의 프로세스가 낙후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기초학문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개탄해 마지않고 기업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인지를 안타까워한다. 전문인치고 자기 분야의 세계 경쟁력에 자신감을 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자질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선진적 사회구조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태도를 우회하여 구축되는 것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교양과 양식이 그에 미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한 원칙과 절차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것의 작동이 가능한 정치 지형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사법기능에 신뢰가 있는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가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가.

망각은 무서운 것이다. 제법 긴 성공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의 실상을 망각해 버렸는지도 모른다. 선진국 진입은 자동으로도 혹은 계속 열심히 일해서도 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인의 자기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



글쓴이는 시인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KBS 라디오 독서실 진행과 TV, 책을 말하다'의 자문위원, 고정패널을 겸하고 있다. 시사칼럼집 『나는 왜 나야야만 할까』, 서평집 『나의 레종 데트르』, 음악칼럼집 『텔레만을 듣는 새벽에』 등을 출간했다.